

2016 대입 합격 전략

학생부 비교과 비중 확대...동아리 열심히 내년 내모습 상상하며 학습계획 세워야

2016학년도 대학입시는 2015학년도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 2015학년도에 처음 줄어든 수시모집 규모는 다시 확대됐고, 그만큼 정시모집은 줄었다. 수시 중에서 논술고사와 적성시험 및 특기자전형 비중은 줄어들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은 학생부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관리도 중요해졌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팀으로부터 '2016 대입 합격 전략' 조언을 들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 특징=전체 모집정원은 전년도(37만6867명)보다 3.1%(1만1558명) 줄어든 36만5309명이다. 이 중 66.7%인 24만3748명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는 전년도 64.0%보다 소폭 늘어

지역의 우수한 수험생들이 해당 지역 의학 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기간별 학습 계획=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시간을 할당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12월, 11월, 9월, 6월, 4월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이면서 단계적으로 구상해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세부적으로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의 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시기(1월~6월 모평) 학습계획 수립+기본개념 정리=가장 먼저 할 일은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부모와 담임교사, 진학교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기간별 학습계획

구분	입시전략	학습전략	포인트
제1시기 (1~2월)	• 자기 점검 및 목표대학 수립	• 교과 기본 개념과 원리 숙지 • 자신의 취약점, 강점 파악 • EBS 교재(수능특강) 풀이	• 교과 기본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 숙지 • 수준별 학습 전략 수립
제2시기 (3~6월)	• 내신 등급 올리기 (중간/기말) • 수시 지원 여부 결정 • 논술 기초역량 완성	• 내신 관리 철저 • 논술 기초역량 완성	• 목표대학 입시요강 숙지 • 국영수탐 간 밸런스 유지 •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 진단
제3시기 (7~8월)	• 취약 단위 적극 공략 • 수능 A, B형 결정(자연계)	• 취약 단위 적극 공략 • 수학 A, B형 결정(자연계)	• 개념 완성 및 문제풀이 능력 향상 • 수시 지원자 논술 능력 극대화
제4시기 (9월~수능)	• 수능 전략 과목 확정 • 수시 모집 지원 • 내신 등급 올리기	• 수능 마무리 학습 시작 • 전략 과목 역량 극대화 • 실전 적응력 극대화	• 문제 해결 능력 극대화 • 명확한 개념 정리 • 마인드 컨트롤
제5시기 (수능~1월)	• 대학별고사 준비 철저 • 정시 지원 전략 수립	• 논술-면접 능력의 극대화 • 지원 전략의 완성	• 자신의 내신·수능·논술 실력 정확하게 진단 • 지원 전략의 완성



조선대학교여과고등학교(교장 이재연) 3학년 학생들이 지난 11일 오후 첫 치러진 2016학년 대학입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전체 정원의 66.7% 수시모집 선발...전년대비 2.7% 늘어 서울대 등 비교과 중요...21일 조선대서 EBS 입시설명회

난 것이며, 그만큼 정시모집은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은 수시모집을 통해 70% 이상 선발하는데, 우수한 수험생 대부분이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기 때문이다. 전남대 55%, 전북대 47%를 뽑는다.

수시모집 중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학생부전형 중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비교과가 포함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 15.7%(5만9284명)에서 18.5%(6만7631명)로 전형 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평소 비교과 관리를 잘해온 수험생들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방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논술고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발 인원을 축소했다. 고려대는 1210명에서 1110명으로, 연세대는 738명에서 683명으로, 서강대는 468명에서 40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학들은 여전히 논술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따라서 서울 주요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논술고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적성시험 모집인원도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반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주로 의학계열에서 시행하는데

목표 대학을 정했다면 남은 기간에 맞춰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확인해 바로잡아야 한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활동을 완성하고, 대학별고사는 각 시험별 유형 파악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전형을 찾아야 한다.

▲제3시기(6월 모평 이후~9월 모평 이전) 취약과목 정리+기출문제 분석=6월 모의평가를 보고 본인이 지원해야 할 대학과 학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기말고사 시기가므로 내신 대비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한다.

여름방학은 부족한 영역 및 단원을 정리·보완할 수 있는 시기인 동시에 효율성 면에서 최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 또 모의평가 오답노트를 점검해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4시기(9월 모평 이후~수능 이전) 문제 해결력 증대 훈련=각종 수시전형이 진행되고 서류 제출과 면접이 실시되는 시기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

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수시 전형이 이뤄지는 탓에 분위기가 산만하다. 이 시기에 순간적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학습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되, 국어·수학·영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다. 수능 막바지에 집중이 잘 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생활리듬이 깨지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건강을 해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한 달 정도 남으면 모든 시간을 수능과 맞추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EBS와 광주 동구청은 오는 21일(토) 오후 2시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2016학년도 EBS 광주지역 입시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는 EBS 최경석(입시), 허준석(수능대비 학습전략) 대표강사가 초빙돼 '수능 연계 EBS 활용전략'을 설명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유와 책임 있는 민주대학 만들기 최선”

김수중 조선대 신임 부총장



통과 민주정신을 기반으로 총장이 지향하는 혁신의 바탕 위에서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며 “(저를)구성원의 성숙한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해 행복한 대학,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도구로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중 부총장은 조선대와 정로회신학대를 거쳐 성신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조선대에 부임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해직됐으며, 1988년 복직해 홍보과장, 학생처장, 교수평의회 의장을 지냈다. 국어국문학계에서 정통성 있는 고전 서사문학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한국어언어학회 회장, 단암어문학회를 역임했고, '신화와 문학정신',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등의 저서를 냈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학교 김수중(국어국문학과·사진)교수가 부총장에 취임, 앞으로 2년간 부총장 직책을 수행한다. 김수중 신임 부총장은 “제 삶의 마지막 섬김의 자리로 생각하고 제단에 드러진 불꽃처럼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후반기 부총장으로서는 서재홍 총장의 경영철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조선대가 자유로우면서도 책임 있는 민주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조선대학교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겠다”면서 “총장을 포함하는 본분에 충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영혁신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막힌 곳이 없는지 두루 살펴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성원의 소



광주여대 특수교육과 토요학교 발족행사. 광주여대대학교(총장 이선재) 초등특수교육과는 최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2015 토요학교 1기' 발족 행사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특수교육과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간 멘토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다. <광주여대 제공>

동강대 '한국전문소생술' 교육기관 인증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한국전문소생술(KALS) 교육기관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본 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온 동강대는 이번 인증으로 명실상부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동강대 응급의료교육센터는 최근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지역 최초로 한국전문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KALS'는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응급구조과 교수를 비롯해 의학과(본과 3·4년)·간호·응급구조과(학과 최종학년)를 대상

로 한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이다. 이번 인증으로 동강대 응급의료교육센터는 매달 한차례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계 등 관계자들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이나 타지방으로 가야했던 불편함을 덜게 됐다. 동강대 응급구조과 최길순 학과장은 “한국전문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은 의학이나 응급구조학 및 간호학 전공생들의 임상실무 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의료인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